

화학산업 임금상승률 “세계 최고”

1996-2002년 연평균 5.7% 달해 ... 미국 1.3%에 일본 0.3% 불과

국내 화학 및 섬유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GDP를 고용규모로 나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를 산출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비교한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IMF 이후 하락 내지 정체추세를 보였으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2년 미국의 31.6%에 머물러 1990년 32.6%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화학산업과 섬유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각각 미국의 28.1%, 33.1%로 열악한 상황이며 반도체 및 전자 부품산업도 미국의 31.2%, 일본의 48.0%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LCD 및 PDP 등 디스플레이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69.2%, 일본의 94.2%로 호조를 보였다.

한·미·일 단위노동비용 증감률 비교(1996-2002)

(단위: %)

구 분	임금상승률			부가가치 증감률			단위노동비용 증감률		
	한 국	미 국	일 본	한 국	미 국	일 본	한 국	미 국	일 본
화 학	10.3	3.0	0.5	4.7	1.7	0.1	5.7	1.3	0.3
섬 유	8.9	3.5	0.8	-2.5	-5.9	-8.4	11.4	9.4	9.2
의 류	7.8	4.0	0.7	-6.0	-1.3	-11.2	13.8	5.3	11.9
전기/전자	8.8	3.8	1.6	14.4	15.0	2.0	-5.6	-11.2	-0.4
제조업	9.6	3.2	0.7	3.3	0.7	-1.5	6.3	2.5	2.2

자료) 산업연구원

노동생산성 부진의 원인은 1996-2002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능가한 임금상승률 때문으로 섬유, 의류, 일반 기계 등 노동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단위노동비용이 2자릿수 증가해 가격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선산업은 미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1.3배 높아 유일하게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부문으로 선정됐으며 생산규모 세계 6위인 자동차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조선산업은 미국의 2.5배, 자동차산업은 1.6배의 높은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11/21>